

전남도의원들 6월 지방선거 단체장 출마 '러시'

장성군수 도전 김한중 의장 등 14명 채비 이보라미 여성 유일 출사표...성적표 관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도의원들의 기초단체장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채급을 올려 시장·군수 도전에 나서는 도의원들만 14명에 달해 당내 경선 통과 여부 등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행주 의원(화순

1)은 4일 오전 화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순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 속에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중요한 해이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더

불어 화순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화순·광주 광역철도망 구축 및 무등산권 공동 관광개발, 광역 첨단의료 데이터산업 추진, 화순탄광 수소시범도시 전환 등 공약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화순군의회 재선과 도의원 재선을 지냈다. 재선의 구북규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화순2)도 오는 15일 화순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재선의 우승희 의원(더

불어민주당·영암1)은 해발 809m 높이의 월출산 천황봉을 올라 영암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젊은 변화, 혁신 영암"을 기치로 내건 우 의원은 "기득권을 과감히 혁파하고 청탁과 비위 등 지역의 고질적인 병폐도 과감히 끊어내는 등 군민들이 주인이 되는 군민의 시대,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지역소멸,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감염병 위협 등 대전환의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20일에는 김한중 의장이 장성읍 선거사무실에서 장성군수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3선인 김 의장은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장을 지내며 몸집을 키웠다. 장성군수에는 김 의장과 더불어 유성수 의원이 도전에 나설 예정이어서 유두석 현 군수 등과 치열한 경합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3선에 의장을 지낸 이용재 의원이 광양시장에 출사표를 던졌고, 이민

준·오하근 의원이 각각 나주시장과 순천시장에 도전한다. 또 광태수 의원이 장흥군수 선거전에 뛰어들 예정이며, 장세일·임영수·이상철 의원이 각각 영광·보성·곡성군수 출마 준비에 한창이다. 여성으로는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이 유일하게 영암군수에 도전에 나서 관심을 받고 있고, 고흥군수에 출마한 박진권 의원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민주당 예비경선을 통과해 본경선을 앞두고 있다. 한편,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재선 도의원 출신인 유근기 곡성군수가 재선에 성공했고, 명현관 전 의장이 해남군수에 당선된 바 있다. /정근산 기자

민주당 친환경 '제·대·로 선거사무소' 개소

쓰레기 없는 3대 미션·9개 실천과제 선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기언치(‘기어이’의 전남 방언)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 당시 공약했던 친환경 선거사무소를 선보이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쓰레기없는 선거'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민주당 광주시당 기언치 선거대책위원회는 4일 광주 서구 지평동 민주당 사무실 인근에서 '제·대·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광주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단이 참석해 3대 미션과 9개 실천과제를 선언하고, 친환경 메시지가 담긴 선대위 사무소 곳곳을 직접 소개했다. 먼저 사무소 명칭 '제·대·로'는 이재명 후보의 새 슬로건 '제대로'를 활용한 3대 미션 '제로 웨이스트(쓰레기 남기지 않기)', '대체 친환경 소재', '로우카본(저탄소)'의 앞 글자를 따다.

3대 미션을 뒷받침할 9개 실천과제로는 ▲머그컵 사용하기 ▲디지털 문서로 회의하기 ▲미사용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내복 입기 ▲개인 식기 사용하기 ▲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친환경 교체세제 사용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사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기 등 환경을 생각한 선거 사무소 운영 수칙을 담았다. 선거사무소 내부 시설도 3대 미션에 부합하는 친환경·재생 소재로 마련하고 아프리카 팻귤과 산호초 등 기후위기로 사라져가는 동·식물을 기억하는 전시물을 비치했다. 바닥재는 폐기된 카페트를 활용한 인조잔디로 장식했고, 회의실과 작업실에서는 종이 문서 대신 태블릿PC나 스마트폰으로 전자 문서를 사용한다. 에너지 충전실에서는 소형 태양열 발전

기로 생산한 전력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충전한다. 빨대나 휴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 대나무 빨대와 손수건 등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제품도 비치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제한한다.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캠핑장인 자가충전실에서는 휴식을 취하며 선대위원장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자가충전자전거도 체험해 볼 수 있다. 선거사무소 벽면에는 시민들이 선대위에 바라는 점과 응원 문구를 담았고, 이재명 후보의 입간판을 세워 선거 분위기를 살렸다. 정다운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대선 선거 기간 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후위기를 떠올리며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기화로 삼겠다"며 "시민들을 위해 열린 민주당 기언치 선거사무소를 언제나 찾아와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오선우 기자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광주 기언치 선거대책위원회 '제·대·로' (제로 웨이스트, 대체 친환경 소재, 로우카본) 사무소 개소식에서 송갑석 공동선대위원장이 자전거발전기를 타며 친환경 선거운동 홍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중흥S-클래스

대한민국이 꿈꾸는 세상 중흥이 짓습니다

주거명품 중흥S-클래스를 통해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선도해온 중흥그룹!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큰 목표는 바로 고객의 행복을 짓는 것입니다

• 2020 건설업력증진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 2019 헤럴드경제 '살고싶은집' 주상복합부문 대상 •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전국 주요 사업실적

안산 선부동 중흥S-클래스

울산 신동 중흥S-클래스

서울 천호동 중흥S-클래스

세종시 H9 중흥S-클래스

광주 신동 중흥S-클래스

김영록 지사, AI 방역 현장 점검

"농가 방역수칙 이행" 당부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장흥 거점소독 시설을 방문,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한 축산차량 소독 등 차단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해 11월 나주 세지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첫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도내에서만 9건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현장에서 농가 스

스로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적극 실천하도록 홍보에 힘쓰고, 방역 현장은 부단재정이 직접 지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도민이 가뜰이나 힘든 상황에서 조류인플루엔자까지 확산한다면 도민의 고통과 행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맞춤형 방역조치를 취했다. 발생

농가 4개소에 대해선 영농활동 및 타기축 사육의 연관성을 고려해 영농활동을 자제시키고 소 곤포사료 농장 반입 신고제를 운영했다. 전남도는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에도 힘쓰고 있다. 사료차량의 타 계열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권역별로 지정해 운행토록 했다. 검역 가족의 조기 색출을 위한 검사도 강화했다. 우리는 사육 기간 42일 동안 10일 간격으로 5회 검사를, 발생 3km 이내는 5일마다 검사를 해야 한다. /김용현 기자

강기정 "이재명표 제2호 호남공약 내놓겠다"

"군공항 이전 보류 폐착...대선공약 밑그림 최선"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호남총괄특보단장이 대선 관련 호남공약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강 단장은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이재명표' 제2호·호남상생공약과 초광역경제성장축으로 한 '호남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임명된 호남총괄특보단장직에 대해 "호남총괄특보단장은 호남발전의 비전을 끌어내 정권 재창출의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임무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무현 정부의 ACC(국립아

시문화재단), 문재인 정부의 한전공대처럼 이재명 정부의 호남 비전을 찾고 그것을 정권 재창출에 녹여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문재인표’ 영·호남 상생공약은 달빛내륙철도였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제2호 영·호남상생공약은 제 머릿속에 있는데, 최인호 영남총괄특보단장과 광주·전남·북시·도당, 후보진영과 협의해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표류 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 단장은

"군공항 이전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은 5년 후로 넘기는 것과 같다. 사·도 간 합의에 이번 정부에 제안해야 했다"면서 "물론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데 패착이다. 대선후 보 공약에 조금이라도 그림이 그려지면 다음 정부 때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야 공약으로 가는, 국정과제로 가는 스타트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선우 기자

국민의힘 광주선대위, 5·18묘지 참배

국민의힘 광주시 선거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신년 인사회를 겸한 이번 참배에는 송기석 국민의힘 광주시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공동선대위원장, 본부

장, 대학생 등 40여 명이 참석해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를 결의했다. 선대위는 참배를 마치고 5·18묘역의 무명 열사 묘지를 돌며 남은 5·18 무명 열사 4명의 신원을 찾아 가족에게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오선우 기자

송기석 총괄선대위원장은 "광주가 만든 민주·인권·평화에 공정과 정의를 더 하겠다"면서 "윤석열 후보가 지난해 12월 23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홀대론'을 불식시키고 호남 지역의 미래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가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선우 기자